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시기획위원회

오늘(21일) 2부 예배 후 담임목사실

3 추수감사절 남성중창팀 모집

신청 오늘(21일)까지
문의 주진범 장로 010-3755-0179

매일아침예배 오전 5:30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묵상노트를 속회원들과 나누보시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를 활용해 주세요.
되도록 현장예배 참석을 권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통해 개인의 삶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본당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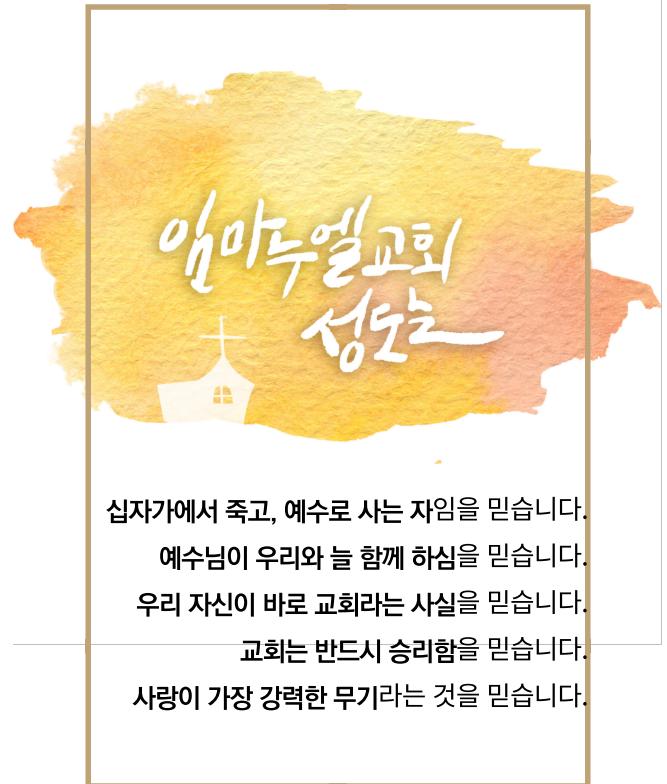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신종현 양승경 선교사 T국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의산벧엘교회 미준철목사
예교회 박정현목사
엘리사교회(군선교) 최이용목사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극동방송
행복한선교회
성남의료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찬양

내가 만민중에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이언웅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성경

창세기 28:1-22[새번역]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보였다

다함께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광야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9/28 1부 이주희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10/5 1부 이혜경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로마서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김경현 목사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_창세기 28:1-22



야곱은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 밧단아람으로 떠났습니다. 밧단아람으로 가는 길은 도피의 길이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77세라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가정도, 기반도 없이, 야곱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떠나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피곤해진 야곱은 마땅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돌을 베개삼아 들판에 누워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지고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예배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도망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야하는 인생의 바닥에 있던 비참한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고, 함께하시며, 지키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잡에서 깨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하고 고백합니다. 두렵고 비참했지만, 하나님이 한 순간도 자신을 떠난 적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잠들었던 그 자리를 <벧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그곳은 본래 아무 의미도 없는 광야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자리는 벧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16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리는 그 곳이 바로 벧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벧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나는 내 삶의 어느 자리를 벧엘로 기억하나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 2) 오늘도 나의 삶을 벧엘로 만들기 위해,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현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현금-김바울감
주일현금-김바울주 / 선교현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현금-김바울건